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sday.or.kr

사랑과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인력’



031-759-5588

제43호 | 발행일 : 2009. 12. 21. |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여성의 정치참여 이제 미물 일 아니죠”

김수영 광주시 무상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INDEX

0 광주시기업인협의회, 통합 '선언'	2면
0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의 흐름	3면
0 경기도 물류단지 조성 '본격화'	4면
0 성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파수꾼'	6면
0 성남시, 수정 · 중원 주택재개발사업 '구체화'	7면
0 신중선 수정구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8면
0 성남시,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13면
0 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변신'	14면

성남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안)

모집개요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8-1 금강하이테크밸리II 아파트형 공장
- 입주시기 : 2009년 12월
- 모집규모 : 5층 510호(224.26㎡), 511호(219.04㎡)

입주대상 기업

- 성남시 소재기업으로 자기 소유 공장이 없어야 함
- 관련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으로 산업표준분류표상 섬유제조 · 봉제의류 업체 또는 관련 업체
- *입주제한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기업, 휴 · 폐업중인 기업

입주조건

- 임대기간 : 2009년 12월 ~ 2010년 7.19(약 8월)
- *성남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 2015년까지 5년 연장시 임대기간도 연장
- 510호 및 511호 : 임대보증금 62,430,000원(전체 보증금액의 20.24%)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금에 대한 이자중 20%를 납부해야 함
- 입주대상 확정업체는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 정회원 가입 의무
- 제소전화해조서서 작성 의무
- 조합추진사업 적극 동참 및 협조
- 관리비는 실비정산

신청방법

 입주자 선정위원회 추천 후 시에서 승인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09년 2월 22일
- 제출방법 : 방문접수(토,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기타 제반서류
- *입주신청서서식은 조합 사무실 비치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상대원1동 138-1) 금강하이테크밸리II 412호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 사무실
- 문의처 :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031-737-4088~9)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031-737-4088~9)

광주시기업인협의회 '통합선언'

광주·도척면면·광남동·초월읍·실촌면기업인협의회 단일 대오 형성
중소기업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함으로 회원 간 유대 강화·위상 제고

‘광주시기업인협의회(회장 한종수) 통합선포식 및 송년의 밤’ 행사가 16일 오후 6시 광주 축협 연회장 3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통합선포는 광주지역 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해 온 (사)광주시기업인협회가 지역의 각 기업인협의회와 통합을 위해 힘쓴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도척면, 광남동, 초월읍, 실촌면 기업인협의회, 여성기업인협의회 등 읍, 면, 동에 조직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돼 이뤄졌다.

1부 통합선포식에서 광주시기업인협의회 한종수 회장, 도척면 기업인협의회 조수호 회장, 광남동 기업인협의회 송무현 회장, 초월면 기업인협의회 이종복 회장, 실촌면 기업인협의회 설길성 회장 등이 손을 맞잡고 광주시 각 기업인협의회가 ‘광주시기업인협의회’로 통합됐음을 선포했다.

이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백남홍 회장이 기업인



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광주시기업인협의회 한종수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여동 광주시장, 이상택 광주시회의의장,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축하 인사로 광주시기업인협의회 발

전을 기원했다. 또 2부는 만찬과 기업인들의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회원 간 교류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통합 출범한 광주시기업인협의회는 지난 2006

년 신명나는 기업, 기업하기 좋은 광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립돼 올 5월 사단법인화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미래의 비전을 설계해 나가는 초석을 다지며 광주시에서 명실상부한 가장 큰 조

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근로자와 하나되는 한마음 큰잔치, 유관단체와 화합의 장을 이룬 체육대회 등 공동체의식과 협력으로 신명나는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정권수 기자

광주문화권 역사 새롭게 조명한다

광주문화권협의회, '산성논지' 제3집 발간

광주문화권협의회(광주·성남·하남문화원, 회장 한춘섭)는 옛 광주문화역사 연구와 보존을 위한 세 번째 연구 작업의 성과로 '산성논지(山城論誌) 제3집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3집에는 현영조 박사(건축가·서울환경계획연구소장)가 '보색성장론(補色成長論)에 의한 도시환경개발 - 광주문화권의 상징: 남한산성역사공원계획', 하남문화원에서 오순제 교수(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이성산성 신앙유적의 재해석', 광주문화원 박광운 향토문화연구소장의 '총렬공 구치관 불천위 제사', 성남문화원에



서 손환일 교수(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가 '간판을

통해본 역사와 문화 성남 모란시장의 간판을 중심으로 부록자료로 광주문화권협의회 활동사항과 화보 등이 수록됐다.

광주문화권협의회는 지난, 2006년 4월 옛 광주문화권의 권역에 속하는 광주·하남·성남 세 문화원이 모여 문화적 동질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 '해돋이 행사' 공동개최, '삼봉사생대회, 둔촌백일장, 경기·광주권 순국선열 추모제', '산성논지' 발간을 통한 광주권 문화 연구사업 등을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도자기로 빛나는 '이웃사랑'

광주시, 도예가 모임 '자울림' 이웃돕기 전시회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 도예가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전시회를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지역 순수 도예가모임 '자울림'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도자 전시·판매전을 열고,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덕운토방, 실월도예, 죽전도예, 청담요, 원광요, 월산요, 토토도예, 군담요 등 자울림 회원들이 제작한 달항아리, 철화백자 용문 항아리, 청화백자매죽 문호 등 작품 30여점과 다기, 찻시, 반상기 등 생활자

기 및 소품도자기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품들은 시

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며, 할인율은 작품 20%, 생활소품 50%가 적용된다.

이번 행사에 대해 자울림 관계자는 "도자전시회는 시민들이 도자예술을 가까이서 접하고, 최고수준의 도예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행사는 도자문화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내하의 주간인물 리뷰 김수영 광주시 무상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여성의 정치참여 이제 미룰 일 아니죠”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뿌리 내려야...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의 흐름’

12월 새색시가 화장을 하듯 눈발이 가볍게 뿌리는 날, 광주시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김수영 씨를 찾았다. 광주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 존재를 과시하는 분들은 다섯 손가락에도 꼽기 어렵다. 그만큼 여성의 정치무대에 등장이 늦설고 어렵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면 순수한 아이들은 동네로 눈 맛이를 나간다. 기대와 소망을 눈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이 창당했을 때 많은 민중들은 소년 소녀의 설렘 속에 민노당을 저자 거리에서 선술집에서 달콤으로 삼았다. 그러나 눈들이 지루하게 내리면 아이들은 눈 놀이에 싫증이 나서 그들이 만든 눈사람을 부서버리고 놀이터를 떠난다. 한 몸체이던 민중의 희망, 진보의 눈사람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이란 머리통과 몸통이 떨어져 광장에서 흉물의 동상이 되었다.

아니 시정통의 식어버린 따로 국밥이다. 그러나 시연과 고난 속에서도 작은 몸짓과 당찬 의지의 목소리가 광주 너른 골에 꿈들거린다.거기에 김수영이 있다!

[편집자 주]



정 = (자리에 앉기도 무섭게) 오래 만입니다. 요즘 광주 화두가 되어 버린 광주 성남 하남의 대통합 논의에 대하여 민노당과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김 = (잡시 기습적인 질문에 약간 당황해 보이지만 곧 침착하고 부드럽게 응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소박한 광주도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활동이 진행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곳이 광주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광주로 이사온 후 공기와 환경이 좋아 아토피가 개선되어 참 만족합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광주가 급작스럽게 개발되고 발전을 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민노당 입장은 비록 대 통합이 이 명박 정권의 기민술과 보수 행정의 호도로 대통합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광주시민이 80%가 넘게 찬성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민노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정 = 민노당에서 김수영님의 직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3년 전 시의원에 도전해 선정했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그리고 광주의 열악한 정치환경에서 여성이 현실정치에 뛰어 든 것이 참 힘이 들었을 텐데요?

김 = 민노당에서 전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어 위원장 직을 그만두어 현재는 평 당원입니다. 2005년 송정동, 퇴촌 면, 중부 면의 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했습니다. 당시에 송정동에서는 2등을 했지만 중부 퇴촌에서는 투표구당 1-2표가 나오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총 1640여 표를 얻었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나 당에서도 이렇게 많은 표가 나올 줄 몰랐지요! 그러나 농촌지역의 보수적인 표심에 놀랄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남성 정치인들은 자



금문제나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으나 여성들은 재정참여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더 뛰어 다녀야 합니다. 여성으로 불의와 부조리에서 남성보다 한결 우위에 있으며, 약자편이나 교육 남녀평등 환경분야에서 남성들보다 더 전선에서 참여하게 마주서 있고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 남성들이 자녀교육에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가정에서 도맡고 있고 이 함들을 모아 사회로 나갈 때 한국의 교육현장이 바뀝니다.

환경분야도 쓰레기와 생활하수 등을 만드는 주체가 때문에 동시에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 = 민노당은 언제부터 가입하고 활동을 했습니까? 광주여성분들은 김수영씨 같은 여성활동가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해 합니다.

김 = 경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성남 공단에서 노동조합운동으로 시작하여 1999년부터 민노당을 가입하여 10여년간 정당생활을 했습니다. 그 동안 여성노조조직과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했습니다.

‘광주 푸른 학교’를 2005년 7월에 시작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벌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활동비를 벌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소중한 재미있었습니다. 가정살림은 남편 최종원씨(전 민노당 지역위원장)가 직장에 들어가 버는 돈으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외조를 잘 해주는 든든한 남편이지요……(웃음)

정 = 실은 민노당의 강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쟁론으로 삼으려다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벗어난 주제라 레코드 오프(비공개)로 하였습니다.(양자가 30분 정도 수심 함을 겨루며 토론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은 한 판이었다. 아쉽다.)

보통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의 당원들까지 당의 강령을 한번도 안 읽고 간부행세를

하는 ‘뿔만 당원’이 대다수인 한국 정치권에 김수영 당원은 단단한 이론으로 무장하고 부드러운 설득력으로 기자의 굵은 살을 파고 든다. 그녀는 거칠어 보이는 진보당의 당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어머니이며 여성이기 때문이다.

정 = 보수당은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진영은 분열해서 망한다고 합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과 재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참으로 안타깝고 고난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에서의 대립으로 지역까지 갈라져

함몰어 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분열에 대한 값을 특별히 치르고 있고 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은화환 그녀의 온화한 얼굴이 고뇌로 굳어져 단호해진다.) 앞으로 선거에서도 민노당이 중심세력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주체세력이 나서야 합니다. 하남시에서도 2명의 민노당 여성 시의원들이 맹활약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여성이 일꾼입니다!!!

정 = 평소 교육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사) 푸른 학교(전국26개 지교)의 지원을 받아 꽃보리(꽃보다 아름다운 아이) 광주 푸른학교를 설립하여 저소득이나 맞벌이 자녀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무료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명이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목 중 특히활동 원어인 영어 중국어 풍물패스키 강습 등 다채롭게 있고 학생들에게 꿈과 인성을 가꾸어 주는 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성과 더불어 실력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여 진보정당에 ‘초록은 동색’이란 통질감을 느꼈던 기자에게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분열하여 마음이 항상 무거웠다. 희망이란 노~란 내비 같은 여성정치인으로부터 새벽녘 검푸른 하늘로 솟아오르는 한결기 희망의 연기를 본다. 그 굴뚝 밑 이궁이에서는 열정과 순수로 점철된 진보진영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풀무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의 변혁을 위하여…… 합차게!!!

김문수 도지사, 자활근로체험 결식이동돕기 발벗고 나섰다

성남시 행복도시락 성남점 방문 도시락 배송

김문수 경기지사가 자활근로자로 변신해 결식이동 돕기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김 지사는 14일 오전 성남시 상대원3동 행복도시락 성남점을 방문해 결식이동 도시락 무상배식을 위해 조리, 포장, 배송작업에 직접 구슬땀을 흘렸다.

행복도시락은 정부, 기업, 지자체, 지역NGO 등의 협력으로 각 지역에 급식센터를 설립해, 지역의 결식 이웃들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사업이다.

먼저 김 지사는 직접 위생복, 위생복, 마스크, 장화를 착용하고 도시락 포장, 반찬조리, 조리대 청소를 진두지휘했다. 또한 자활근로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 모습이 아름답다. 행복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김 지사는 "자활근



로자들은 국가수급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활을 통해 위대한 자립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도, 시, 국가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니 더욱 힘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소형 배달차에 직접 올라 1시간 동안 도시락 배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지사는 수정구 수진동에 거주하는 진 모군(남, 11세) 등 5명의 결식이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했고 "특히 학업에 지친 고3 수험생들이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기 북부지역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 학생들을 찾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도시락 성남점에서는 공동체 직원 10명 등 모두 18명의 직원이 성남시 13개 등 결식이동에게 매일 550여개의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권수 기자

위례신도시 불법투기 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단속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품질 좋고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 붙였다.

9일 서울, 경기, 인천 등 LH의 수도권 지역본부 보금자리주택지구 담당직원 30여명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을 앞두고 최근 보상투기 엄단의 모범이 된 위례신도시에서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사전 체험 교육 및 합동 단속활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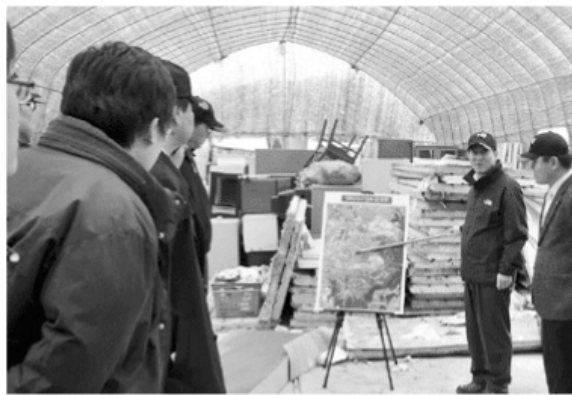
이 날 행사는 보상을 노린 불법투기를 엄단하고자 벌이 살지 않는 벌통반입,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쪽방 설치 및 불법 분양 등 다양한 투기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과 합동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향후 담당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상을 노린 불법투기에 공동대처해 나감으로써 원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지난 4월부터 위례신도시에서의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인 '갓과라치제도', 직원 2인이 1조가 되어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현장 감시단인 '위례가디언', 24시간 3교대 현장감시용역의 '위례킴이' 등을 실시해 다수의 불법 보상 투기를 차단한 바 있다.

특히, '갓과라치제도'와 현장감시단인 '위례가디언' 등은 지난 9월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부통산 투기방지 대책'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합동 단속반을 이끈 위례사업본부 홍석기 본부장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투기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사업초기 단계부터 원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LH가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고 최고의 품질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베트남 시장 '공략'

10개 업체 파견... 1천만 불 수출 성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는 동남아 주력시장인 베트남에 도내 기업들을 파견, 1천만 불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경기중기센터에 따르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aig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제7회 호치민 종합박람회(Vietnam International Trade Expo 2009)"에 (주)쏘코, 신화약품 등 도내 우수기업 10개사를 참가시켜 총 128건, 24,961천불의 상담과 25건 10,099천불의 계약을 이끌어 냈다고 8일 밝혔다.

베트남은 인구 8천200만으로 연 8%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음의

큰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매년 대 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무전극랩프 제조사인 (주)쏘코는 총 28회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호치민 전기설비사인 D사와 상담을 진행해 약 3,600백만불의 계약추진을 이끌어냈다.

D사는 베트남에서 9번째 규모의 전기설비사로 공사 설계 단계에서 무전극랩프 제품을 포함하여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부사장과 여러 차례 상담이 추진되면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약·칫솔 제조업체인 신화약품은 베트남 판매업체 S사와 치약 및 칫솔제품에 대해 월 50만 불, 연 600만 불의 계약을 체결했다.

S사는 베트남 전역에 치약·칫솔, 비누 등 제품을 거래하는 회사로 한국 제품에 많은 신뢰를 보였으며, 향후 비누 제품을 거래할 의향이 있어 관련 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참가업체 중 천연비누, 화장품 제조업체인 그린존은 말레이시아 바이어 N사와 천연화장품 거래에 대한 상담을 진행, 약 10만 불 가량의 계약체결을 이끌어냈다. N사는 말레이시아 내 유통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총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베트남이 한국의 10대 수출국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교역과 터너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을 꾸준히 지원하여 도내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물류단지 조성 '본격화'

11개 지역 조성...2012년까지 완공 예정

경기도가 물류시설의 집적·효율화를 통한 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단지 조성을 본격화 한다. 이에 따라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11개소로 광택종합·광주도척물류단지와 여주물류단지는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전패션물류단지, 광주초월물류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등 8개 물류단지는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광주초월물류단지와 안성원곡물류단지는 금년 12월까지 승인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패션물류단지는 지난 11월 27일 사업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한국패션유통물류(주)의 주주사 24개 패션기업이 2012년까지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패션물류단지 797,643㎡를 개발한다.

또한 이전패션물류단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결정점인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의 패션물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물류단지에는 공원, 녹지, 최첨단 물류시설과 어우러진 자연 테마형 유통시설이 들어선다.

잘사는 노년 (aging - well)



허태자

프로필

- 한양대 간호학과 졸업
- 정신보건전문간호사
-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노인분과위원
- 한국노성협회 홍보이사
- 현 오크힐스 광주 요양원 원장

한해가 저물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새해엔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기 위한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렇듯 지나가는 세월과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 보다 나은 내일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합니다.

인생의 청년기와 중년기를 지나 접한 다가오는 노년에 대해 어떤 다짐을 하나요?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세월 속에서 늘어나는 주름 앞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떤이가 다가오는 노년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맞이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준비없이, 대책없이 노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가 약해지므로 얻어지는 질병과 더불어 심리적인 위축앞에 어드레 우리는 노년이라는 이름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저는 40대 후반이라 중년이라 할 수 있지만, 요양원을 7년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후를 보며, 웰빙 보다는 웰 다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며, 잘 먹고 잘살자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주말 TV 프로그래밍 맛집 찾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전국의 맛집을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노년에 대한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 짧은 지면이지만, '잘사는 노년'을 준비하기위한 노화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화의 과정은 신체적인 노화와 심리적인 노화 두가지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 -뇌의변화 (뇌의 무게 감소, 뇌신경세포감소,세포의 성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짐,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 신체적변화 (근육세포감소, 복부와 등부에 지방축적,혈압과 말초혈

시각, 청각, 등의 감각능력의 감퇴, 자신감의감퇴) -생에 대한 회상의 증가(지나온 생을 뒤 돌아보고 회상하는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오래사용한 물건에 대한 애착-집, 가재도구, 사진, 골동품, 일용품) - 시간 전망의 변화(살아온 날을 계산하기 보다는 앞으로 남은 날을계산하기 시작) -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 의존성의 증가(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존성, 정서적의존성)

노년의 신체적 변화에 대

해지고, 자기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이므로 노화되어가는 자신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 가족들또 내 부모님의 심리적인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노화의 과정은 그 끝이 '죽음' 이므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가는 노년의 마음을 주변에서 사람과 이해로 감싸 줄 때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을 위해서는 잘사는 노년을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노년기를 맞는 시기에 에 이뤄야하는 발달과업이 무엇이 알고 이를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사는 노년을 위한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약화되는 신체적 힘과 건강에 따른 적응, 퇴직과 경제적 수입감소에 따른 적응,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자기동년배 집단과의 유대관계 강화,사회적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적응하는 일.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생활환경의 조성, 질병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 이제, 건강한 신체, 건전한 인간관계, 노화의 수용, 창조적인 삶, 감사의 여유를 가지므로 활기찬 노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웰빙' 보다 '웰다잉' 을 준비해야 할 때 노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 극복해 나아가

관장애, 폐활량감소,변비, 빈혈, 생식기 약화 등) - 만성질환의 증가(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치매, 심장병, 신장병 등)

2) 노화에 따른 심리적변화 : -우울증 경향의 증가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소외 및 고립)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는 자기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진다) -경직성의 증가(자기에게 익숙해 있는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계속하는 행동경향) -조심성의 증가 (정확성을 중요시

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노년의 심리적인 변화는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저 나이들면,어린애 같아진다, 고집이 세진다. 그런정도로 터부시 해버리다보니, 어르신 자신도 왜 자신이 변해가는지 모르면서 가족들의 소외속에 더욱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게 되어 우울증 및 치매 증상들이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신체의 변화 속에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가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주변상황에 예민해지고, 소외감이 커지다보니, 가족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며, 쉽게 섭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려 건전한 인간관계, 노화의 수용, 창조적인 삶, 감사의 여유 등 활기찬 노년을 준비해야 할 것"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정치후원금!
바른 정치를 위한
깨끗한 후원금입니다

정치후원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 인터넷으로 쉽게 :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 ☑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 숫자 539(5-4-9) + 통신3사 인터넷 접속키(NATE SHOW → 93)
- ☑ 제휴카드로 편리하게 : 신용카드 포인트기부(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신한카드/신한카드/신한카드)
- ☑ 대한민국국회 의원명장 : www.assembly.go.kr 에서 후원

최고 정치후원금 후원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세액공제)

결제할때 **정치후원금** 을 꼭 보세요

정치자금기부센터 (www.give.go.kr)를 통해 후원금을 후원하시면 추첨을 통해 무첨한 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자금기부센터 홈페이지 참조)

성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파수꾼'

지난 5일은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훈훈한 이웃의 이야기를 게재한다. 분당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한성희 회장은 지난 18년 동안 지역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회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한성희
분당구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

“봉사는 자신을 위한 실천적 삶을 구현 하는 것이죠”

-분당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기반을 둔 단체이다. 성남시는 1999년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구·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청소년지도위원 수는 동별로 15인 이내며 자연환경, 인구 등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게 된다. 분당구 청소년지도위원 210여명을 비롯해 수정구, 중원구청소년지도위원을 합해 총 5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도위원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는 제외된다.

- '봉사'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봉사하면서 평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봉사활동을 할 때면 봉사를 하는 자체만으로 뿌듯함이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봉사라 하면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열과 성을 쏟아야 하는 행동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봉사를 통해 느낀 점은 남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실천이라는 것이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을 위해 봉사정신을 갖고 실천하는 삶은 넓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남을 위한 봉사가 자신을 위한 봉사가 되고 자신을 위한 봉사가 더 나아가 나의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어 준다.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이 싹트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각이

배양돼 개인의 자아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자신에게 특이 되는 이치이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때 청소년들은 잘 나

당시 잊지 못할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가도록 어깨띠를 두르고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때 상당수의 아이들이 수용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전달보다는 간접 전달을 하게 되는데 숨어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앞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른으로서 작은 역할이나마 베풀었는데 그 아이들은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다.

해마다 수능시험 당일 새벽이면 각종 청소년지도위원 10여명이 모여 수능고사장을 찾는 학부모와 수능고사장에 입실하는 학생을 위해 무료로 따뜻한 차와 사랑을 제공한다. 매년 14개 학교 고사장에서 140여명의 지도위원이 참여했다.

추석에는 소외된 불우청소년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어려운 청소년 6명에게 성남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지난 2008년 5월과 11월 및 2009년 6월 분당구 청소년 어울마당에 청소년 선도 팝플랫을 배부하고 행사 참여 학생에게 부상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 놀이문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태안반도 기름유출로 인한 범전국적 재해복구에 자체 경비로 참여했으며 2009년 8월 중고등생 200여명과 함께 수해로 인해 더럽혀진 탄천일대를 돌며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갑작스런 폭우로 탄천변 배수구가 막혀 배수로 정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마대 500여포(20KG)의 모래를 제거했다.

올 3월에는 관내 10여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개 동청소년지도위원들이 참여해 새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를 통해 금연서약서를 받는 등 청소년흡연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사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지도위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자원봉사자상'을 수상하시게 된 소감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아무리 힘겹고 벅찬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함께한 분당구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장님과 지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 모두 함께 나누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민간의 축복을 기회삼고 내자녀의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마음처럼 내자녀의 스승이란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눔의 봉사자가 되길 기원한다.

성남시,수정·중원 주택재개발사업 '구체화'

신흥2·중1·금광1구역 승인 고시...공동주택 9천세대 건립

성남 수정·중원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단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신흥2, 중1, 금광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지난 4일자로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3개구역의 사업 총면적은 54만5천863㎡로, 분양주택 7천401세대, 임대주택 1천648세대 등 공동주택 총 9,049세대가 건립된다.

이들 구역별로 보면 신흥2구역 3천299세대, 중동1구역 1천882세대, 금광1구역 3천868세대가 건립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

택공사는 정비계획 수립시 설정된 숲, 내, 골을 주테마로 주변지역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설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설계 현상 공모 결과와 세계적인 건축가 니시무라 노리오와 아마모토 리켄의 국제제안 등을 토대로 전통의 공간디자인 요소와 경사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흥2, 중1, 금광1구역 가옥주 및 세입자들은 내년 상반기 중 판교지구 내 확보된 4천993가구의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이주하며, 기존 건물 철거 등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신흥2구역 조감도.

수정·중원구 등 구도심 주택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임시로 살 아 파트에 입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로 돌아가

는 '순환정비사업' 방식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2단계 3개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판교지구 내에

순환용 이주주택 4천993가구를 확보해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자체 이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미 1단계 주택재개발 구역인 단대, 중동3구역은 지난 5월 도촌지구 순환 이주용 주택으로 이주와 철거를 마쳤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가옥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 계획이다.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3개 구역은 앞으로 지장물 조사, 자산평가,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성남상의, 성남상공대상 부문별 수상자 발표

종합상공대상에 (주)이디 박용후 사장, 17일 시상식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변봉덕)가 17일 오후 6시 30분 상의 대강당에서 '제12회 성남상공대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성남상공대상 부문별 수상자는 종합상공대상에 (주)이디 박용후 대표이사, 벤처창업부문에 (주)포티스 실진영 대표이사, 노사협력부문에 한진KPS(주) 박찬희 노조위원장, 기술개발부문에 (주)한국종합기술 도중호 상무이사, 품질관리부문에 (주)크린토피아 김태욱 팀장, 수출기여부문에 한국지이초음파(유) 이문수 이사, 행정지원부문에 성남시청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등 총 7명이다.

특히, 종합상공대상을 수상하는 (주)이디 박용후 대표이사는 과거 국내 고유장비시장을 독점하던 독일 FESTO와 경쟁 우위를 선점하여 임베디드 실습장비, 교육용 로봇 실습장비 등 국내 교육 장비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켜 국가 산업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출원(13건) 및 신기술(NET) 인증 획득을 통해 이를 사업화시켜 신제품(NEP) 인증 획득과 신기술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에 일조했다.

아울러 지능형로봇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에 힘써 국민 로봇 사업단 플랫폼업체로 선

정 받았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하여 KAIST를 포함한 9개의 대학교, 8개의 전문대학, 18개 전문고 등 국내 업계와 학계에 로소개발자들에게 널리 보급했다.

이를 기반으로 박 사장은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로봇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됨으로써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국가 신 성장 동력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했다.

또한 성장 동력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국제수준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수출을 통해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남홍 하광상의회장,경제고문 위촉

중국위해시,백 회장 위촉패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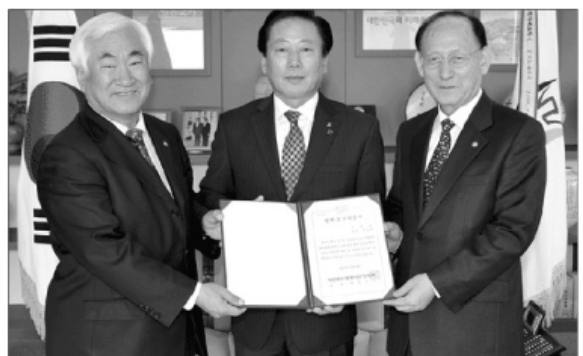
백남홍(사진) 하광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영빈관에 메탈드홀에서 위해시(시장 손수타오) 신년 초대회 행사에서 중국 위해시 인민정부로부터 그동안의 노고와 앞으로 많은 자문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로 경제고문으로 위촉패를 수여 받았다.

위해시는 하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유산시를 관할하고 있는 도시로 현재 위해시 고문으로는 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위해시는 산동성 최둥단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이다. 1987년 위해시로 승격된 이



후 GDP 연 평균 성장률은 18%에 달하며 도시 종합역량이 전국 23위로 중국 북쪽 지방에서 가장 빠르고 활력 있는 경제 발전을 보이는 도시 중 하나다. 또한 세계 500대 기업을 비롯한 3천여개의 외국 투자업체가 활발한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심학범 윤금영 대표장학금 5백만원 전달 광주시 목련동 소재 삼화캠 윤금영 대표 일행은 지난 4일 광주시를 방문, 지역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재)광주시민정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나눔경영 실천

대한적십자봉사회 광주시지부 규명의회에 '사랑의 연탄' 전달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지부장 김정식) 직원들은 1일 지역사랑과 나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을 대한적십자봉사회 광주시지부회의회

에 기탁했다. 국내 유일의 토종은행인 농협은 지역내 소외받는 이웃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매월 직원들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모금해 매년 추석과 연말연시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중앙회 김정식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건강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건강보험이 만들어갑니다.

2009년 12월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암환자 본인부담 절반으로 대폭 인하**

현행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 경감

■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6~14세 어린이 치아에 생긴 홈 메우기 보험 적용

■ **한방 물리요법**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 치료 등 보험 적용



www.kpc1sn.ac.kr

“이유있는 1등”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로!

고교졸업년도와 상관없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대구?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칠순까지 철밥통 기술을 안겨드립니다.

전형별 모집인원

학 과	소 계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
컴퓨터응용금형	33	12	12	9
컴퓨터응용기계	33	12	12	9
신소재응용	33	12	12	9
자동차시스템	33	12	12	9
전기계측제어	33	12	12	9
광 전 자	33	12	12	9
시스템제어정보	33	12	12	9
정보통신시스템	16	6	6	4

* 상기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전형별 모집일정

원 서 접 수	인터넷	2009.12.21(월) ~ 2010.1.14(목)	유웨이, 진학사
	방 문	2010.1.12(화) ~ 2010.1.14(목)	
면 접		2010.1.20(수)	
합격자발표		2010.1.27(수)	
등 록 기 간		2010.1.27(수) ~ 2010.1.29(금)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로!

높은취업률

- 4년연속 취업률 90% 이상
- 현장중심의 기술교육
- 대졸자도 다시 입학하여 취업하는 대학

국책특수대학

- 국가가 설립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2년제 전문대학
- 저렴한 학비(타 전문대학의 1/2)
- 최신 시설 기숙사 완비
- 신기술교육장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 중

해외연수

- 재학생 대상 학생 해외연수비 대학 전액 지원
- 해외연수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의 특별한 입시 Tip!
고교졸업년도와 상관없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대구?

- 타대학 합격자도 지원가능
- 면접 30% 반영
- 수능과 내신 중 골라서 내 맘대로
- 가산점 적용
- 다른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입학문의
TEL. 031-739-4010~14
FAX. 031-749-3375



수정·중원 재개발 현장을 가다

신종선 수정구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고도제한 완화돼야
사업성과 재정착률 높아져”

“고도제한 완화 없는 재개발 반대한다” 교육·주거환경 최적... ‘성남비전 꿈꿔’

성남시 수정,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단계인 단대구역과 중1구역이 지난해 6월 착공한데 이어 2단계 신흥2, 중1, 금광1구역도 12월 4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됨에 따라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성남시와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는 신흥2구역 이주단지가 판교에 마련돼 계획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고도제한 해결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신흥2구역 주민들은 지난 3월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범시민대회에 동참하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12월 3일 성남발전연합이 주관하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 쉼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와 국방부에 고도제한 해결을 촉구하며 희망의 풍선을 띄워 보내기도 했다.

- 신흥2구역 추진현황

성남시 재개발 2단계(신흥2, 수진2, 중1, 금광1구역)인 ‘신흥2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26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고 27일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로 지정돼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12월 14일 고분단과 추진위원회 71명이 참석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강일지로 공영방식을 채택, 주민대표회의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최단기간으로 징구하여 올 5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통보받고 9월 30일 주민대표회의를 열고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과 사업시행약정서를 인준했다.

이날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은 1,257명 투표에 1,147명(91%)이 찬성, 사업시행약정서는 1,136명(90%)이 찬성했다.

이에 10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12월 4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 받았다. 현재는 지장물 검사 및 감정평가가 당면해 있고 감정평가업체는 이미 선정돼 계약단계에 있다.

-신흥2구역은 어떤 곳인가?

신흥2구역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성남도립도서관, 희망대초등학교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하철 산성역과 신흥역이 앞뒤로 있어 최적의 교통을 자랑한다.

그러나 중1구역과 금광1구역은 25층, 20층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신흥2동은 15층으로 됐다.

신흥2구역에게 고도제한 완

화가 가장 기대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소한 20층 이상은 돼야 주민들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도 “신흥2구역은 고도제한 완화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틀리는 말에 의하면 올 12월 말, 내년 1월 초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데 그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했으면 한다.

-성남시에 요구사항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출했다.

주민 재산과 직결되는 용적률이 지난 2006년 11월 30일 시에서 발표한 기본계획 250%에 훨씬 못 미치는 223.8%로 공람됐다. 신흥2구역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분리돼 있어 법정 용적률 265%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시민을 위한 재개발을 한다면 고도제한 완화와 아울러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 가옥주 부담을 줄이고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또 2008년 11월 26일 정비구역지정고시 때보다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4천평 이상 감소했다. 토지소유자 2100명을 기준으로 3천여만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사업시행인

가 공람 고시(안)를 보면 세대수도 38세대가 준 3,299세대이다.

시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촌로 문제이다. 음촌로 30m 확장에 포함된 신흥2구역의 도로면 상가에 대해 희망로 확장공사와 대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주단지 공급은?

이미 판교 이주 단지가 아마 준공이 났을 것이다. 2단계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토지주택공사와 시에서는 고민하고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한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등과 함께 가야 하기에 총

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와 토지주택공사와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하는 게 좋다.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후, 고도제한 완화 시에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고 싶은 말씀

신흥2구역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 피해가 많다.

주민들도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사업성과 재정착률이 높아진다고 함목소리를 내고 있어 재개발의 모든 일은 고도제한이 관건이다.



“서울공항을 민·군 겸용으로 활용하자”

허희영 항공대 교수 주장...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공항 역할론 제기

“서울 남동부권역-경기 남부권역 접근 용이한 입지 갖춰”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항공물류수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을 민·군 겸용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공대 허희영 교수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서울공항(성남)의 민간항공 활용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군 전용공항인 서울공항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약 24km, 서울 집경으로부터는 약 3.5km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안양 18km, 수원 22km, 용인 30km, 오산 36km로 서울의 남동부권역과 경기의 남부권역의 주민이 접근하기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교수는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권역 내에 최소 3, 4개의 공항을 운영함으로써 항공시장별로 수요에 맞도록 항공교통망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항공교통 분담 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런던과 뉴욕의 경우, 동서남북 방향으로 도심 80km 내에 각각 6개와 7개의 공항을 국내선·국제선·저비용항공사·자가용 전용공항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공적인 대도시 거점 공항 대부분은 국내선-국제선 연결편을 고려하여 국제선만의 전용공항은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선-국제선 겸용 공항, 국내선 전용공항, 국내선-저비용항공노선 겸용, 저비용항공노선-자가용 공항 등으로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항공환경의 변화

로 서울공항의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수도권 3개 공항 간의 항공교통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및 국내선 연결편의 거점 공항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북아 허브 공항의 기본 취지를 달성토록 하고, 김포국제공항은 신규 수요창출을 수용할 수 있도록 3, 4시간 이내의 중·단거리 국제선 및 저비용항공사의 거점공항으로 운영하며, 서울공항은 남북한 긴장이 해소되기 전까지 민간 겸용공항으로서 온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즈니스항공 등 소형기 사업을 포함한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부정기 항공 및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중소형항공기에 한하여 개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개방의 수준은 소형기 중심의 자가용 항공, 에어택시, 기업 활동을 위한 비즈니스항공에 한하여 공항을 개방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서울공항에서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 소용수준 이하의 중형기급 항공기를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시설 기능의 유지, 국민전용공항에 대한 항공안전 및 보안, 소음 문제에 대한 성남시 등 지역주민과의 협의, 김포 및 인천국제공항과의 항공교통 역할분담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심하고 아기를 낳으세요”

분당제생병원, 직장인 보육시설 개소

분당제생병원(병원장 채병국)은 오전 직장인 보육 시설인 '제생 어린이 집'을 열었다.

성남지역 종합병원은 물론 공기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직장인 보육 시설을 많이 하는데 병원에

이번에 문을 연 어린이 집은 자녀 양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경영진이 노력한 결과로 제

생병원 별관 1층에 80평 규모로 49명의 어린이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위탁할 수 있다.

이번 어린이집 개원에 대해 채병국 병원장은 “직원들이 육아문제로 고생 많이 하는데 병원에 어린이 집을 개소해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양질의 육아 서비스로 행복한 직장 문화를 가꾸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어쇼’ 장면

복이 새로 따뜻한 호박 넝쿨 온수매트

친정 같이 편안하고 고향같이 포근하고

고급스러움에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과 색상, 과학적인 설계로 가치를 더합니다.

컴피Boiler에 장착된 가습기는 온수를 생산하는 보일러와 콘트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 공기를 대위 자연 상승되는 온기를 가습기에 무도시켜 인체에 이로운 자연 증발식 가습 기능을 합니다. 또한 대기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스스로 가습량을 조절하는 지능형 가습기입니다.

아직도 전기매트들? 전자기파 차단되었다고요?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서로 상쇄시켜 측정기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전기매트에 사용되는 전기에너지가 모두 난방열로 전환되지 않고 전자기 파장으로 방출소실 되므로 전기도량에 비해 난방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자기파는 임을 예방하는 효로운 생산을 저하시켜 우리 몸에 암 발생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겨울 난방비 걱정 끝! 추위 끝!
성실기업의 호박 넝쿨 온수매트 만의 장점 BIG 5

- BIG 1 | 전자기파와 기계 소음이 없음
- BIG 2 | 세탁이 가능(내·외 모두 세탁)
- BIG 3 | 친환경적이고 부드러운 면원단(내·외)사용
- BIG 4 | 안정성과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감
- BIG 5 | 국내 최초 청정 가습기를 내장

ISO 9001 인증

더블·싱글 매트, 카메트, 풀셋트 구매시 여자구두 증정 매트 구매 전 고객에게 일회용 마스크 10매 증정

카메트 : 1800-2300 : 378,000
1500-1800 : 318,000
1200-1800 : 298,000

베디너 217 : 380,000 베디너 219 : 180,000
베디너 221 : 198,000 WMA 514 : 108,000

총사업부담금 : 104,000원 오빠가방 : 40,000원

● 총사업부담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50%는 세기시 부담

● 신상품에 한하여 10% 할인

● 신상품에 한하여 10% 할인

평화교회 (남양주시 미동면) 성실기업

경기도 광주시 광명동 236-12 TEL. 031-761-3674
주문전화 070-8256-7060
대표 임대현 장로

신원동 110-283-287024 예규주 정선영
기업은행 242-090301-02-018 예규주 정선영
국민은행 613802-01-086658 예규주 정선영
농협 221011-52-106435 예규주 정선영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택시 탄다

성남시, 택시업계와 가맹점 등록... 택시 3천여대 대상

성남지역 내에서는 이달부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택시를 탈 수 있게 됐다.

시는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포 대상을 지난 10월 5일부터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대중교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성남시 전체 운영 택시 3,528대 중 85%인 3,006대와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등록을 계약한 3,006대 중 성남개인택시는 2,465대이고, 법인택시는 22개 업체의 1,063대 중 12개 업체, 541대이다.

특히, 이번에 100% 가맹 등록한 개인택시는 조합(조합장 유인철)측이 다양한 요금결제 방식을 통해 최근 택시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이나 카드결제 외 성남사랑상품권 결제방식을 조합원 모두가 받아들였다.

이번에 가맹 등록한 택시에는 시가 제작·배부한 ‘성남



재래시장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모습.

사랑상품권 가맹택시 스티커’가 택시 앞·뒷면 유리에 부착돼 있어 시민들의 눈에 쉽게 띈다. 이 스티커가 부착된 택시를 타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성남시는 아직까지 가맹 계약을 하지 않은 10개 업체, 522대의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협조를 요청해 빠른 시일 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 계약을 추진, 택시업계의 요금결제방식의 다양화와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택시 가맹점 등록 계약 체결 외에도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시 위탁 기간인 연금매점이나 시청 구 내식당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2통화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이 최종 선발한다. 연수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하며, 여권 발급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성남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인으로서의 견문과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중국 심양 및 인근도시를 중심으로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330명의 중학생에게 우리 고대유적지 탐방의 기회를 마련해 민족의 우월성과 조상의 일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해, 고구려 유적지 탐방, 백두산 천지 견학,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 하얼빈 방등제 관람 등이다.

연수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관내 중학교 1학년생 40명이다.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성남시와 청소년육성재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연수생 모집

중국 심양·장춘시 방문... 국제적 마인드 제고 일환

성남시는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자매 도시인 중국 심양시와 신규 우호도시인 장춘시 등지에서 ‘제7회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2010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연수 내용은 심양시와 장춘시

초대석
[시]



정혜정

프로필

- 너른고을 문화 총무
- (사) 한국 편지 가족협회 회원
- 충현 문학상 수상
- 한맥문학 시 부문 우수상
- 광주시청 여성문화센터 유머 웃음 코칭 강사
- 서울장신대 평생교육원 출강

사람들 속에 나는 있었습니다.

그대와 우연히 마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은 은총입니다.

나에게 보석같이 소중한 그대

나에게 필요한 그대의 빛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대와 나의 눈부신 만남을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대는 나의 하늘

나에게 진정 파도치는 바다

그 사이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디자인세상 인터플러스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싼 가격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저가형 제작물을 만든 후 후회하신 적이 없었는지요?

인터플러스에서 저렴한면서도 퀄리티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 유지보수
기본형 100만원(일반홍보), 일반형, 맞춤형까지

카다록 / 팜플렛
기본형 150만원(칼라 8페이지, SW200g, 1,000부 기준) ~ 맞춤형까지

그래픽디자인
CI / BI, 포스터, 3D 등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r-plus.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Tel.070-7649-5136 HP.011-381-2136

엄마와 함께 찾는 볼거리 많은 도서관

성남시 중앙 등 5개 공공도서관 겨울방학특강... 내달 5일부터

성남시 5개 공공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분당·구미·수정·중원도서관은 각 도서관별 일정에 따라 이달 수강생을 모집해 내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겨울방학특강'을 운영한다.

특강 프로그램은 '책과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여행', '볼이로 배우는 조선시대', '행복한 그림책 읽기',

'위풍당당 자아찾기(미슐치료)', '톡톡 스피치 리더십', '엄마, 나 학교가요', '환경을 생각하는 가방이야기', '아이를 위한 사람의 대화기술' 등이다.

5개 공공도서관은 또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권역별 인근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나흘동안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독서교실 운영 과목은 '도서관이 용감', '독후감 작성법', '덩더쿵 우리 소리와 놀자', '영



어 팝업 카드 쓰기, '그림책과 함께 걱정인형 만들기', '책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우리나라 전통 탈' 등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방학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 체험과 독후 활동으로 짜여져 도

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힘을 길러줄 것"이라면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개 공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전화(☎중앙·729-4633, 분당·729-4667, 구미·729-4693, 수정·743-9600, 중원·752-3916)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야외스케이트장 '개장'

레포츠 체험기회 제공... 12일부터 돌입

성남시는 신청사 내 야외스케이트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내 눈썰매장, 태평동 탄천 내 얼음썰매장을 연달아 개장해 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2일 문을 여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내 야외스케이트장은 3,329㎡(폭40m, 연장81.2m)규모로 한번에 3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금요일은 오전 9~11시까지 2회, 만6세 이상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의 스케이트 교실도 운영(www.sinc.or.kr)한다.

스케이트장 이용 요금은 스케이트와 안전모 등 대여료를 포함해 1,000원, 강습료는 10,000원이다. 내년 2월 21일 까지 매일 운영한다. 당분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5회 운영하며, 겨울방

학 이후에는 오후 9시까지 6회 운영한다.

같은 날 문을 여는 성남종합운동장 내 눈썰매장은 총 4,000㎡규모이다. 성인용(폭20m, 연장55m), 어린이용(폭10m, 연장33m) 슬로프 각각 1개 코스를 운영한다. 또 눈썰매장 이용 대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에어바운스 2종을 운영한다.

눈썰매장과 에어바운스 이

용료는 각각 1,000원이다. 내년 2월 21일까지 휴일없이 운영하며, 평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4회, 토·일요일,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5회 운영한다.

또한 19일에는 수정구 태평동 물놀이장에 조성한 얼음썰매장이 문을 연다. '탄천 민속 얼음썰매장'은 1,302㎡(폭21m, 연장62m) 규모로 한번에 5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얼음썰매장 옆 물놀이광장에는 '전통 민속놀이 문화체험장 공간'이 조성돼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를 즐길 수 있다.

시는 주말에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를 동반한 시민들을 위해 총 500개의 썰매와 100개의 팽이, 널뛰기 2조, 제기 30개, 투호 5세트 등을 마련해 놓았다. 얼음썰매장 이용료와 썰매 대여료는 무료이다. 내년 2월 2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회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내 시민개방공간인 야외스케이트장을 비롯한 눈썰매장, 얼음썰매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과 함께 겨울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웰빙놀이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추천도서 <틀려도 관찰이>가 뮤지컬로 재탄생된 작품입니다.

창작! 체험학습 뮤지컬

2010년 1월, 세상의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시작됩니다

25년 전통의 가족뮤지컬 전문극단 '에일' 과 함께하는 겨울방학특집! 어린이 체험, 학습, 감동 가족뮤지컬!!!

2010. 1. 6(수)~1. 10(월) 오후 2시, 4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2010. 1. 13(수)~1. 17(일) 오후 2시, 4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전석 20,000원 예매 15,000원
2작품 동시 구매시 12,000원
공연문의: 1588-7890
단체예약: 070-7582-9133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일보, 뉴스데이

정채봉 베스트셀러 "오세암" 뮤지컬의 감동으로 "꼭제에니"대상 수상, 칸영화제 주니어 주일리상 수상, 스포츠영화제 관객상 수상

아나, 연명한 엄마들이 선택한 어린이 최고의 베스트셀러, 포털사이트 NAVER 추천도서(www.naver.com) 셋, 초등학교 권장도서

창작 뮤지컬 오세암

시처럼 맑고 아름다운 이야기



34년의 오랜 역사 속에 98%의 우수한 취업률을 자랑하는 '한국폴리텍 I 대학(Polytech College) 성남캠퍼스'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용학문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는 최고의 테크니션 양성의 일환으로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CROSS OVER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기숙사 원비, 각종 장학금 혜택 등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추는 등 교육지원 서비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는 1976년 성남직업훈련원으로 시작, 1987년 2년제 전문과정으로 개편하고 1994년에 '성남기능대학'으로 승격했다. 이어 1995년부터 전문대학과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으며 2006년 '한국폴리텍 I 대학'으로의 명칭 변경 후 2007년 8월 '성남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로 변경, 현재 사용하고 있다.

2년제 산업학사학위과정으로 컴퓨터응용기계, 자동화시스템, 컴퓨터응용금형, 시스템제어정비, 전기계측제어, 광전자, 신소재응용, 정보통신시스템 등 8개 학과에 재학생은 870명이다.

특히,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 성장동력지원사업단, 시니어직업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에 기술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9월 새롭게 취임한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 김완수 학장(법학박사)을 만나 성남캠퍼스의 발전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파워인터뷰 김완수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변신'

맞춤형 인재양성 업체 '호평'... 전국 최초 '시니어직업훈련센터' 개설



대학은 하나의 기술이 아닌 두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되는 '융합형(crossover형) 기술' 교육을 통해 본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의 지역사회와의 역할은.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이다.

전국 최초로 성남시와 관·학 협약 체결을 통해 '시니어직업훈련센터'를 개소했다. 정리하고, 기업도산 등으로 실직한 40대에서 60대 고령자의 직업훈련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매기 3개월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해 1기에 120명씩 현재 5기가 수료했고 관련 자격증 취득률은 74%, 취업률은 64% 가량 기록하고 있다.

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자금부족과 기술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대학시설을 제공해 더 큰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성남시에서 6억원을 지원받아 담장을 헐고 시내버스 2대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공간을 가로수와 산책로 등으로 조성, 산성동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산성동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의 역점 정책은.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핵심까지 300%'이다. 100% 입학, 100% 명품인재 양성, 100% 취업을 시키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 '맞춤형 명품인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향상훈련 100%, 고객만족도 100%를 덧붙여

500%의 소명에 몰입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수별로 기업전담제를 뒤 교수 1명당 10개 기업을 담당해 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정보와 현장실습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취업에 대한 만족도는.

군인으로 승인 받고 온 학생, 54세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본인이 원해서 배우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 기술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90%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폴리텍대학이 타 대학보다 하는 일은 많은데 하는 일에 비해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국책 대학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양에서부터 평생기술까지 교육하고 재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시민들에게 폴리텍대학의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학생들과 시민들의 기회의 장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김완수 학장 프로필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원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도덕성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 한국 발전 정책 연구소 전문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 지사장
- 전국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협의회 부위원장
- 민주 평화통일 자문 위원
- 원광대학교 총동문회장

▶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허병기)은 노동부 산하 '한국의 대표적인 직업훈련기관'으로 교육기관 중 가장 많은 전국 38개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교육훈련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우수등급'에 선정되며 대한민국 기술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완비해 제주도, 목포 학생들도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편 아니라 장학금 혜택이 전체 학생의 50%에 달하며 취업률이 98%에 달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의 자랑이 있다면.

창업과 군입대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학생을 제외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거의 100% 취업이

된다고 보면 된다. 작년도 졸업생 중에는 IBM KOREA에 취업한 학생 등 4천여만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취업자도 다수 있다.

특히, 신소재학과 2년 윤성욱 군이 본교 산학협력단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2009년 전국 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 대회는 국내 200여 대학이 신청해 18개 대학만이 2차에 통과했고 소위 서울대, 연세대 등 명문대와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성남에 속한 5위(장려상)에 입상한 사례다. 상금 200만원을 받고 폴리텍대학과 본 캠퍼스 위상과 브랜드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취업난은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면 4년제 식품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대학에 와서 기계 관련 평생기술을 배운 후 동원그룹 같은 식품회사에서 식품을 다루면서 식품기계도 다루는 경우와 같이, 폴리텍

논설주간

정내하

신판흥부가

신판 흥부에게는 흥부가 놀부 형수를 부엌으로 찾아가 보자마자 "저 흥분데요~"하니 놀부 미누라가 어이없어 밥주걱으로 흥부의 싸대기를 뺏다 갈기자 얼굴 밥알을 훑어 허겁지겁 먹으며 다시 "형수님 저 흥분데요!!"하고 다른 빵을 들이미니 놀부 미누라 이 모습 년이 밥주걱을 놓고 부지깽이로 흥부를 흠씬 때려호호나....."

한물간 우스개 만담을 새롭게 각색해 본다. 어쨌든 수숫대로 만든 작은 말집에서도 흥부는 조강지처만 보아도 잘 흥분되었던 모양이다. 원전 '흥부전'에는 흥부의 아이가 대강 11명에서 30명이나 되어 명석의 구멍을 뚫어 함께 입고 다녔다고 할 만큼 다복(?)한 가정을 꾸렸다. 요즘을 이런 가정이라면 보금자리 주택 분양의 영순위이며 인구 적은 시 군에서는 서로 모시고 싶은 세대이다. 서울에서 60~70년대의 가정을 보면 보통 3-4명의 아이들은 일반적이었다.

인구의 감소는 통계표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시퍼렇게 실감된다. 몇 일전, 초딩 동창회를 하는데 압구정동에 사는 동창할 미국 듀크 대학에 입학한 딸을 위해 대학 4년간 3억 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세웠다 한다.

광주의 32평 아파트 한 채 값이다. 노후보장을 위해 딸에게 대학 등록금은 차용증을 받기로 했다. 더구나 딸이나 졸업 후 시집갈 때 수억

개질 것을 생각하니 본전을 확실히 뽑을 사위 녀를 선택하겠다는 장인의 당찬 포부를 밝힌다. 세상이 갈수록 중산층이나 빈곤층의 허리의 휘는 강도가 세지고 있다. 허리에 매단 자녀 교육비와 아파트 등 빚들의 추가 급속도로 무거워진다. 중산층들은 경제적 효율성의 법칙에 따라 돈을 타치는 대로 먹여대는 귀신고래 같은 자녀 녀의 수를 우선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거시기를 일

에서 저 출산의 실태와 원인이 초래할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009년 올해 발표된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출산 기피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을 저하는 미국,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소했다. 이 연령대는 독신 비율이 높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 역시 높아 소비가 적다. 거품경제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인구 감소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타산지석이 이리 저리 굴러다녀도 이명박정권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 겨우 대책이라고 만든 것이 만 5세에 취학하여 사회적인 노동인구 진입을 앞당긴다는 발상이다. 참으로 한심무지보소이다. 차라리 군 60만대군중 10만 정예병만 남기고 50만 노동예비군을 시장경제에 조기 투입하는 과격적인 발상은 어떠한가? 일년에 두 번 정도 2~3주씩 세계 전투 훈련을 시키고 밤에는 집에서 가장 큰 체형 훈련과 컴퓨터로 실재상황 같은 위계임을 개발해 전투 훈련을 시킨다면..... 이렇게 잘 훈련된 반군 반인인 청년병들이 개발한 컴퓨터 클리 한방이면 북한군의 모든 전쟁프로그램을 마비시키고 남조선에 향한 미사일이 거꾸로 북쪽 위대한 수령동지의 거처로 향해 날아갈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오늘 뉴스데이 신문사에 보수 우파로부터, 군에서 철방뿔을 걱정하는 분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듯 올 것 같다. 오늘은 그만 펜을 놓아야 하겠다.

10~30명 자녀... 옛날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
아파트 값, 자녀 교육비... 허리가 휘는 세상사
가정경제 감당못해 출산기피·결혼 늦추기 일쑤
전세계 공통현상... 인구감소는 계속 진행될 듯

부 거세하는 것이 돈 안드는 가장 확실한 노후 보장의 비책이다.

바둑판의 我生連後殺(我的 전법)이다. (내가 산 후에 남을 대적하는 전법)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먼 발치에서 보다 질려버린 사회 초년생이나 88팔자의 예비 사회생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화려한 싱글을 선택한다. 2004년에 인구 문제 전문가 필립 뽀만은 <텅 빈 요람>

공통 현상이다. 오늘날 전세계 출산율은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돼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세대별 인구가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도 고딩까지 자녀에 들어가는 평균 교육비 100만 달러와 기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를 줄이거나 결혼을 포기한다고 한다. 일본은 1980~90년 25~44세 인구의 7%가



‘행궁’ 2010년 상반기 복원 완료

제3차 남한산성관리위원회 개최, 새해 업무계획 보고

경기도는 14일 남한산성에서 제3차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남한산성관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출범 이후 '남한산성 관리체계 개선', '남한산성 종합발전계획 마련' 등 남한산성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확정된 남한산성

종합발전계획과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그동안 공식적이었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남한산성은 지난 3월 남한산성내 문화재관리단체를 도입 직접체제로 전환하고 전담 관리기구를 신설하면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등문화 축제 개최, 주말 상설 숲속음악회 공연, 역사

아카데미 운영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행궁 권역정비내 상가에 대해 지난 8월 도에서 직접 행정대 집행권을 단행, 철거를 완료하는 등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지난 2000년부터 200억원을 투입한 행궁복원이 완료되고 행궁권역정비(30,685㎡)에 탐방객 휴식과 소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전통공원 조성 및 인화관, 종각복원 등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시스템 운영

오는 2010년 1월부터 가동... 위반자 과태료 부과

광주시는 자원이 재순환하는 사회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기고자 내년 1월부터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http://bigclean.gcity.go.kr>)을 운영한다. 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 인쇄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 운반차,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스티커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했으나,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최대 3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무단투기시에는 1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데이

newsday.or.kr

발행·편집인: 김광란
부회장/논설주간: 정내하
편집장: 모동희
등록일: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경기 다00907

발행처: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평동 3417 명성빌딩5층
구독·광고 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sday.or.kr

디자인세상
인터플러스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3D/CI/BI
카드록/팜플렛/기타 홍보물

제43호 | 발행일 : 2009. 12. 21. |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변신'

김원수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INDEX

0 광주 시기업인협의회, 통합 '선언'	2면
0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의 흐름	3면
0 경기도 물류단지 조성 '본격화'	4면
0 성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파수꾼'	6면
0 성남시, 수정 · 중원 주택재개발사업 '구체화'	7면
0 신중선 수정구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8면
0 성남시, 아외스케이이트장 '개장'	13면

성남시향토문화총서9

「낙생 마을지」 발간

푸른성남

향토문화총서 9
www.seungnam.or.kr

그간 성남문화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마을지 발간을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판교>, <대왕>, <복정, 태평>, <금광, 단대, 상대원>, <돌마(상),(하)> 마을지를 발간해 왔고, 마지막으로 <낙생 마을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창립31주년이 된 성남문화원도 우리 고장의 향토사 자료의 수집과 연구, 보존 전승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에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 '낙생면의 역사와 문화' 문수진
- '낙생지역의 문화유산' 윤중준
- '낙생마을의 지명' 한동익
- '낙생지역 세거성씨 집성촌 및 인물조사' 정재영
- '마을의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전봉구
- '마을의 주요기관' 이보영

낙생 마을지



성남문화원